

젊은 꿈들아, 21세기 녹색대학으로 오라!



선택! 대학 2010

/ 명지대학교를 가다



‘사랑, 진리, 봉사’.
한 젊음을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고귀한 정신은
1948년 개교 이래 명지대학교가
굳게 지켜 온 이념이기도 하다.
지나온 60년보다 새로운 60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힘.
21세기 ‘녹색대학’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의 미래는 힘차고 밝다.



명지대학교는 다양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왼쪽부터) 미국 뉴욕 현지수업프로그램, 외국인 어학 프로그램, 공간디자인학과 품평회, 교수들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모습.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지난해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명지대학교는 ‘비전 2015 - 사랑과 창조의 글로벌 리더’를 선포했다. ‘건강한 영성과 섬김의 리더 양성’, ‘글로벌 스탠더드의 대학환경 조성’, ‘국내 10대 명문사학 진입’을 3대 목표

표로 하여 제2의 도약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디자인 시대를 맞아 명지대학교 캠퍼스도 과감한 변신을 하고 있다. 시설과 조형 면에서 국내 어느 예술 공예장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60주년채플관, 유리 벽면으로 마감되어 시원하면서도 독특한 입체감을 안겨주는 차세대과학관이 21세기 명지를 디자인하는 초석이 라면, 내년 초 건립되는 방목학술정보관은 첨단 IT기술과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집약해놓은 명지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명지대학교는 캠퍼스 디자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디자인 관련학과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명지대학교의 디자인 관련학과로는 디자인학부, 공

개교 60주년 ‘사랑·창조 글로벌 리더’ 선포
‘국내 10대 명문사학’ 진입 등 제2도약 노력
유리 벽면 차세대 과학관 등 캠퍼스도 변신

공학인증 획득...공대생 대기업 취업엔 우대
대학교육협 평가 경제·물리학 분야 ‘최우수’

간디자인학과, 건축학부 등을 꼽을 수 있다.

건축대학은 설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를 특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001년 국내 최초로 국제 건축교육 기준에 따라 건축설계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개편했으며, 2002년에는 종전의 공과대학에서 독립적인 건축대학으로 독립해 5년제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명지대학교 공과대학 전 학과는 2009년 (사)한국공학대학교육협에서 실시한 공학교육인증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명지대학교 졸업

생은 삼성·LG 등 대기업 취업과 엔지니어 자격시험(기사·기술사 시험) 취득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경영대학은 7월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하 경인원)으로부터 경영학교육인증을 획득했다. 경영학교육인증은 수준 높은 경영학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경인원이 수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7개 기준에 걸쳐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명지대학교는 2009년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별 평가 경제학·물리학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계열별로 전문적인 교육환경과 특성화를 강화하고자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로 이원화를 구축했다. 서울에 위치한 인문캠퍼스에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과 대학 학부 최초로 독립적으로 신설된 미술사학과, 한국 사건의 130년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사지연구소 등이 있다.

용인의 자연캠퍼스에는 자연과학·공학·예술체육·건축대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및 국가기관과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국가와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전 학생에 국제프로그램 기회...콜롬비아 유학생 등록금 지원도

■ 명지대 세계화 교육

중어중문학과·아랍지역학과 전원
1년간 국외현지학습프로그램 참여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명지대학교는 세계 유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현재 21개국, 150여개 대학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졸업 전까지 전 학생에게 1회 이상의 국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교환교수,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인턴십 포함)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해외문화탐방 등 다양한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준비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있다.

회원교로서 콜롬비아대학교, 옥스포드대학교 등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의 50개 명문 대학에 방문학생 파견, 특히 아이비리그 콜롬비아대학교로 파견되는 교비유학생에게는 연간등록금 일체 지원.

●CCCU(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회원교 간 주요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 교환.

●복수학위제도 등 해외명문대학과 교환학생 장기교육 프로그램 진행.

●어문계열 중어중문학과, 아랍지역학과 재학생(3학년) 전원에게 1년간 해외 자매대학의 국외현지학습프로그램 참여 지원.

●건축대학의 경우 이탈리아 베니스건축대학, 로마대학교와 건축설계사무소 공동운영, 엑스포시티 프로젝트 및 제주 서귀포시 지역발전계획 프로젝트 공동연구. 해외 현지수업의 일환으로 미국 뉴욕 프로그램 진행.

●SAF (Study Abroad Foundation Program)의 주요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 2010학년도 명지대 모집요강

19일부터 ‘나군’ ‘다군’ 분할 모집
뮤지컬공연전공 실기 67%로 선발

명지대학교가 정식모집 원서접수를 12월 19일(토)부터 24일(목)까지 인터넷(www.mju.ac.kr/www.uway.com)을 통해 ‘나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나군’에서는 일반전형 830명, 농어촌특별전형(정원 외) 122명, 전문계 고교 수시결원 일부를 선발한다.

정시‘다군’에서는 일반전형 466명을 모집한다. 정시‘나군’은 학생부 25% + 수능 75%이며, 정시‘다군’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단, 뮤지컬공연전공은 학생부 33%, 실기 67%로 학생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한 후 등록을 포기해 발생하는 수시결원의 경우 정시 ‘나군’과 ‘다군’에 추가 배정됨. 2009.12.17(목) 홈페이지 공지 예정)

●정시 나군

나군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학생부(교과)	수능	합계
	일반 830명 농어촌 122명	25%(200점)	75%(600점)	100%(800점)

●정시 다군

다군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수능	실기	합계
	일반 444명	100%(600점)		100%(600점)
	영화뮤지컬학부 (뮤지컬공연전공) (뮤지컬 22명)	33%(200점)	67%(400점)	100%(600점)

●학생부의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5%, 2학년 30%, 3학년 45%를 반영한다.

●기타: 홈페이지(http://ipsi.mju.ac.kr) 참조
입시상담 전화: 02)300-1799, 1800

“미래는 녹색성장 시대 대학생들 선봉에 서야”

■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화가 국가적 과제였는데 이제는 모든 초점이 녹색성장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에게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가 우리나라와 지구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고민해야 합니다.”

유병진(사진) 총장은 앞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고를 가진 젊은이만이 선진 시민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만 진정한 선진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한 출발점은 물론 학교생활이다. 명지대학교 사회봉사단 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교내 클린캠퍼스 활동, 교외 녹색정화 활동 등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여러 전공 학과를 융합해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전공을 선보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대학교에서 에너지학과 설립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환경 보호와 직결된 생명연구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녹색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대학교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자연캠퍼스에서는 빗물을 교내 저수지에 저장해 식용이 아닌 곳에 사용하는 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병진 총장은 “대학과 기업, 정부는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선두에 서 있는 만큼 소임이 중요하고 협력 효과 역시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캠퍼스에는 환경부로부터 6년 반 동안 연간 200억원을 지원받는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막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화 물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곳으로서 산학연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밖에 산학협력단에서는 국내 여러 기업들과 함께 태양광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도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유병진 총장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녹색성장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명지대학교의 특성을 잘 살려 저개발국가에서 환경보호활동이 포함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공과대학에서 한국과 외국인 학생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